

문화재청 공고 제2021-92호

문화재보호법 시행령 제11조 제4항의 규정에 따라 국가지정문화재(보물) 지정가치가 있다고 평가된 총 3건에 대해 다음과 같이 예고합니다.

2021. 2. 25.

문 화 재 청 장

1. 공 고 명 : 국가지정문화재(보물) 지정 예고

2. 공고사항

가. 국가지정문화재(보물) 지정 예고 대상 : 총 3건

연번	문화재명	수량	소유자 (관리자)
1	장성 백양사 아미타여래설법도 및 복장유물 (長城 白羊寺 阿彌陀如來說法圖 및 腹藏遺物)	불화 1폭, 복장유물 6건 10점	대한불교조계종 백양사 (불갑사정보박물관)
2	고창 봉덕리 1호분 출토 금동신발 (高敞 鳳德里 一號墳 出土 金銅飾履)	1쌍(2점)	국 유 (국립전주박물관)
3	나주 정촌고분 출토 금동신발 (羅州 丁村古墳 出土 金銅飾履)	1쌍(2점)	국 유 (국립나주문화재연구소)

나. 지정 예고 사유 : 붙임 참조

3. 예고일자 : 관보 공고일

4. 예고기간 : 관보 공고일로부터 30일 이상

5. 연 락 처 : 문화재청 문화재보존국 유형문화재과

가. 주 소 : (우 : 35208) 대전광역시 서구 청사로 189

나. 전 화 : 042-481-4686 / 팩스 : 042-481-4939

다. 홈페이지 : <http://www.cha.go.kr>, 전자메일 hjungyon@korea.kr

붙임. 국가지정문화재(보물) 지정예고 사유 1부. 끝.

【보물 지정 예고】

□ 장성 백양사 아미타여래설법도 및 복장유물
(長城 白羊寺 阿彌陀如來說法圖 및 腹藏遺物)

- 지정현황 : 전라남도 유형문화재 제291호(2008.4.11. 지정)
- 명 칭 : 장성 백양사 아미타여래설법도 및 복장유물
(長城 白羊寺 阿彌陀如來說法圖 및 腹藏遺物)
- 소유자(관리자) : 대한불교조계종 백양사(불갑사정보박물관)
- 소재지 : 전라남도 영광군 불갑면 불갑사로 450, 불갑사정보박물관
- 수 량 : 불화 1폭, 복장유물 6건 10점
- 규 격 : 전체 338.7×234.2cm
- 재 질 : 비단에 채색
- 조성연대 : 1775년(영조 51)
- 제작자 : 색민(靑敏), 우은(祐隱), 계헌(戒憲), 정은(淨岑), 유한(宥閑), 기정(斯定), 영심(永心), 만성(萬成), 천성(千成), 교윤(皎閏), 달연(達蓮)

○ 사 유

‘장성 백양사 아미타여래설법도’는 1775년(영조 51) 수화승 색민(靑敏)을 비롯한 총 11명의 화승들이 참여해 제작한 불화로, 1775년 극락전 아미타불상을 중수하면서 새롭게 제작된 작품으로, 1994년 9월에 도난당했으나 2006년 9월 회수되었다.

대시주 겸 화주(化主)인 환월당 민숙(喚月堂 旻肅, 18세기)이 외조모 유씨 부부와 어머니 봉씨 부부의 극락왕생을 기원할 목적으로 발원할 것으로, 복장발원문에 ‘불상개금 백월당개금 색민비구 상단탱도화원 계헌비구(佛像改金 白月堂大師 靑旻比丘, 上壇幀都畫員 戒憲比丘)’라고 기록되어 있어 색민이 불상개금 및 불화조성의 총책임을 맡았고 불화의 조성은 계헌을 중심으로 여러 화승들이 담당했을 것으로 추정된다.

수화승 색민은 18세기 전반의 대화승 의점의 문하에서 그림을 배운 인물로, 그 역시 뛰어난 필력으로 대형 괘불도에서부터 칠성도에 이르기까지 모든 분야의 불화를 그려내었던 18세기를 대표하는 화승 중 한명이다. 색민의 활동상 이 작품은 만년기에 해당하지만, 계헌의 입장에서는 첫 수화승이 되

어 그린 작품이다. 따라서 이 ‘장성 백양사 극락보전 아미타여래설법도’는 의겸에서 색민, 색민에서 다시 계현으로 이어지는 의겸 화풍의 전승과 발전 과정을 이해하는데 매우 중요한 작품으로 평가된다.

상황은 일부 개장되었으나 본 화면은 제작 당시의 원형을 큰 손상 없이 간직하고 있다. 본존인 아미타불을 중심으로 8대보살과 6위의 제자, 사천왕, 2위의 팔부중을 배치한 간략한 화면구성, 본존의 두광에서부터 제자상과 팔대보살 등 권속들을 따라가며 화면을 꽉 채우는 큰 원형구도, 세로로 긴 화면, 화면을 압도하는 본존불, 날씬한 협시보살의 모습 등에서 전체적으로 장중함과 상승감을 느끼게 한다. 이러한 특징은 색민이 제작한 ‘구례 화엄사 삼신불도’(1757년) 및 ‘해남 대흥사 괘불도’(1764년) 등에서도 확인할 수 있다.

‘장성 백양사 아미타여래설법도’는 안정되고 짜임새 있는 구도와 구성력을 갖추었으며, 간결한 필치와 안정되고 중후한 색감, 원만한 인물의 표현 등에서도 18세기 후반의 시대적 특징을 잘 반영하고 있는 대표적인 불화로 평가된다. 아울러 제작 당시의 복장유물이 온전하게 잘 남아 있어 18세기 후반 불화 복장 연구에 귀중한 자료를 제공해주므로, 함께 보물로 지정해 보존, 관리할 가치가 있다.

<복장유물 현황>

번호	명칭	시기	재질	크기cm	수량	사진
1	복장주머니	1775	비단 종이	33.9x31.0	1점	
2	발원문	1775	종이	35.8x59.3	1점	
3	후령통 일괄 (후령통, 오륜중자, 출실지 양면원경 2점)	1775	종이	7.5x4.9	5점	 *후령통 오보병 잔존
4	보협진언	1775	종이	26.5x2.7	1점	

						
5	일채야래심 바밀전신 사리보합안다타니	1775	종이	34.2x23.2	1점	
6	근봉지	1775	종이	23.2x23.2	1점	
계	6건 10점					

□ 고창 봉덕리 1호분 출토 금동신발(高敞 鳳德里 一號墳 出土 金銅飾履)

- 지정사항: 비지정
- 명 칭 : 고창 봉덕리 1호분 출토 금동신발(高敞 鳳德里 一號墳 出土 金銅飾履)
- 소유자(관리자) : 국유(국립전주박물관)
- 소재지 : 전라북도 전주시 완산구 죽고개로 249, 국립전주박물관
- 수 량 : 1쌍(2점)
- 규 격 : ① 우측신발 : 길이 32.4cm. 최대 너비 10.7cm. 최대 높이 11.9cm.
② 좌측신발 : 길이 32.7cm. 최대 너비 10.7cm. 최대 높이 11.6cm
- 재 질 : 금동
- 조성연대 : 5세기
- 사 유

‘고창 봉덕리 1호분 출토 금동신발’은 전라북도 고창 봉덕리에 위치한 4기의 대형 분구묘(墳丘墓, 분구를 조성한 다음 그 안에 매장시설을 설치하는 무덤양식) 중 규모가 가장 큰 1호분의 제4호 석실에서 2009년 원광대학교 마한백제문화연구소가 발굴했다. 4호 석실은 전혀 도굴되지 않은 무덤으로, 여기에서 금동신발 한 쌍이 무덤 주인공의 양쪽 발에 신겨져 거의 훼손되지 않은 채 출토되었던 것이다. 이 봉덕리 1호분 출토 금동신발은 장례 때 의례

용으로 사용된 신발로서 백제 시대의 전형적인 형태와 문양을 보여주는 금속공예품이다.

금동신발의 전체 형태를 보면, 발목깃을 갖추어 앞쪽은 뾰족하면서 약간 위로 들렸고, 중간 바닥이 편평하며, 뒤쪽은 약간 좁아져 둥근 편이어서 흡사 배 모양을 연상케 한다. 투각(透刻)의 육각형으로 구획된 형태 안에 용, 인면조신(人面鳥身, 사람얼굴에 새 몸통을 가진 상상의 동물), 쌍조문(雙鳥文), 괴수(怪獸), 연꽃 등 각종 문양이 화려하게 장식되었다. 신발 바닥에는 1.7cm 높이의 뾰족한 못 18개를 규칙적으로 붙였고, 내부에는 비단 재질의 직물을 발라 마감하였다.

고창 봉덕리 1호분에서 출토된 금동신발은 현재까지 삼국 시대의 고분에서 출토된 약 19점의 금동신발 중 가장 완벽한 형태이며, 나주 정촌고분에서 출토된 금동신발과 비교했을 때 어자무늬(魚子文, 물고기 알 문양) 등 삼국 시대 초기 문양이 확인되어 시기적으로 앞서 제작된 것으로 판단된다. 무령왕릉의 왕과 왕비의 신발과 마찬가지로 바닥판과 좌우측판, 발목깃판으로 구성되고 바닥에 징(스파이크)를 박은 백제 금동신발의 전형적인 특징을 지니고 있어 백제의 중앙 권력자가 제작해 왕의 힘을 과시하고 지방 수장의 위신을 세워주기 위해 지방 유력 지배층에게 내려준 ‘위세품(威勢品)’으로 추정된다.

이러한 ‘고창 봉덕리 1호분 출토 금동신발’은 백제 시대 의례용 금동신발로서, 보기 드물게 원형을 갖추어 출토된 중요한 고대 금속공예품이자, 다양하고 뛰어난 공예기법을 이용해 제작된 것으로, 5세기 중반 백제 미술을 대표하는 작품으로 보물로 지정할 가치가 충분하다.

□ 나주 정촌고분 출토 금동신발(羅州 丁村古墳 出土 金銅飾履)

- 지정현황 : 비지정
- 명 칭 : 나주 정촌고분 출토 금동신발(羅州 丁村古墳 出土 金銅飾履)
- 소유자(관리자) : 국유(국립나주문화재연구소)
- 소재지 : 전라남도 나주시 영산포로 263-23, 국립나주문화재연구소
- 수 량 : 1쌍(2점)
- 규 격 : ① 우측신발 : 길이 31.83cm. 최대 너비 9.35cm. 최대 높이 14cm
② 좌측신발 : 길이 31.09cm. 최대 너비 9.2cm. 최대 높이 14cm
- 재 질 : 금동

○ 조성연대 : 5세기

○ 사 유

‘나주 정촌고분 출토 금동신발’은 삼국 시대 대형 분구묘인 정촌고분의 1호 석실에서 2014년 국립나주문화재연구소가 발굴한 것이다. 5~6세기 무렵 영산강유역에는 복암리 고분군, 정촌고분, 영동리 고분군 등 대형 고분이 축조되었는데, 그 중 정촌고분은 1,500여 년 전 백제·마한 문화를 가장 종합적으로 보여주는 고분이면서 도굴 피해를 입지 않아 매장의 원형을 알 수 있어 고고학적으로 매우 중요한 무덤이다.

정촌고분 1호 석실 제3목관에서 발견된 금동신발은 좌우 신발 한 쌍이 거의 훼손되지 않은 채 완벽한 모습으로 출토되었으며, 특히, 발등 부분에 부착된 용머리 장식은 현존 삼국시대 금동신발 중 유일한 사례로 주목을 받아왔다. 최근에는 국립나주문화재연구소가 수행한 과학적 분석 결과, 신발의 주인공이 40대 여성으로 추정되기도 하였다.

이 금동신발은 형태와 제작기법, 문양 등에서 고창 봉덕리 출토 금동신발과 매우 유사하다. 얇은 금동판 4장으로 바닥판과 좌우 옆면판, 발목깃판을 만들어 서로 작은 못으로 연결하였고 문양을 투각해 세부를 선으로 묘사한 방식 등 고대 금속공예 기법이 잘 반영되어 있다. 아울러 육각문, 용문, 인면조신(人面鳥身), 괴수문, 연화문 등 사후영생(死後永生)을 기원한 고대인들의 사후세계관이 반영된 듯한 다양한 문양이 정교하고 세밀하게 표현되어 있어 조형적으로도 매우 우수하다.

‘나주 정촌고분 출토 금동신발’은 고창 봉덕리 금동신발에 비해 조금 늦은 5세기 후반 경에 제작되어 6세기 무령왕릉 출토 금동신발로 이어지는 과도기적 단계를 보여주는 공예품이자 5~6세기 백제의 사상과 미술을 이해하는데 중요한 작품으로서, 보물로 지정해 연구할 가치가 있다.

【지정 예고 사진】

○ 보물 지정 예고



<장성 백양사 아미타여래설법도>



<고창 봉덕리 1호분 출토 금동신발>



<나주 정촌고분 출토 금동신발>